日 신세대 포교 현장

"언제까지 구식으로만 포교할텐가"

DJ출신 스님의 테크노 법회
극락 모티브 클럽도 열려
모델 출신 스님의 패션쇼
부처님 좌우로 런웨이길
고양이 앞세워 포교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젊은 세대에게 포교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계 전반에 만연한 가운데, 특별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포교하는 일본 사찰들이 있어 화제다.

일본 '마이치니 신문', '탄바신문', 'IT미디어 뉴스' 등이 이색적인 포교사례를 소개했다.

3월 18일 '마이니치 신문'은 후쿠이시(福井市)에서 열린 야외 테크노 법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월 24일 후쿠이역 앞 공원에는 극락정토가 펼쳐졌다. 스님들은 무대조명과 빔프로젝터로 연출된 극락에서 테크노 리듬에 맞춰 염불했다. 후쿠이시 쇼온지(照恩寺)의 주지 아사쿠라 쿄센(朝倉行宣) 스님이 출가 전 DJ와 조명기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젊은 세대를 포교하기 위해 고안한 법회다. 이미 2016년 5월에 쇼온지에서 시작해 화제가 된 이 법회는 이제 절을 떠나 역 앞 광장으로 나왔다.



테크노법회를 개최한 아사쿠라 쿄센 스님.
사진출처=MAKE.F

교센 스님은 "중세에는 스님들이 길가에서 설법하는 길거리 설법이 유행했다. 불법의 장소가 절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절에 한정됐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앞 공원에서 테크노 법회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테크노 법회에 다른 DJ들을 초청, 법회뿐만 아니라 극락을 모티브한 야외 클럽을 개장했다. 법회장의 한 쪽에는 야외 바, 노점들이 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법회서 열린 패션쇼 현장. 사진출처=단바신문



절보다 더 인기가 많은 고양이모양 호신부.
사진출처= IT미디어 뉴스

'단바신문'은 패션쇼를 통한 불교 포교 현장을 보도했다. 3월 10일 사사야마시(篠山市)의 간쇼지(願勝寺)에서 열린 특별한 패션쇼 현장이다. 이번 패션쇼는 간쇼지의 연례 춘계법회의 마무리 행사로 개최됐다. 원래는 가요 콘서트나 특별강좌, 만담 등이던 행사를 현대적이고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바꿔보자는 의견에서 이번 패션쇼가 마련됐다.

이후 여러 안들이 나왔으나 불교와 패션이라는 두 주제를 한 데 모으기 위해 디자이너로 나카무라 나츠키(中村南月) 스님의 의상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나츠키 스님은 모델 사무소를 경영하면서 출가해 수행 끝에 주지 자격까지 취득한 현역 모델이기도 하다.

간쇼지는 본당의 가운데 빨간 카펫으로 런웨이를 만들었다. 부처님의 좌우로 모델들이 걸어 나왔다. 의상들은 보살이나 천녀(天女)들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옷들로 마치 불화 속에서 나온 듯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매료했다.

한편 일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신부(お守)로 젊은 세대에 어필하는 사찰도 있다. 3월 16일 'IT미디어 뉴스'는 고양이 모양의 호신부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절이 있다고 전했다.

토치기현의 죠라쿠지는 애묘인인 주지스님이 유명한 절로, 이미 명물인 절 고양이들을 보러 오는 참배객들이 많다. 절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들을 본떠 만든 고양이 호신부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연보라색의 호신부는 건강과 교통안전을 위한 부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영험이 있다고 광고되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둔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 현재는 절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곧 온라인 판매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서 卍 vs 卐 논란

펑후 지역 챠오인 사찰서
건물에 사고로 잘못 기재
올바른 모양 여부는 논란



논란이 된 펑후의 챠오인 사원.
사진출처=타이완 뉴스

대만 펑후 사원, 만(卍)자의 잘못된 설치로 '나치' 심볼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화제를 모았다.

'타이완 뉴스'는 3월 20일 대만 해협 소군도 펑후(澎湖)에 있는 챠오인 사찰(Chaoyin Buddhist temple)이 만(卍)자를 뒤집어 설치해(卐), 나치의 상징과 같아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교만다라가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확하다며 문제없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분분하다.

화제의 챠오인 사찰은 1963년에 건축돼 1973년에 3층 건물이 추가됐다. 그러나 원유, 바람, 비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 준공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준공 관계자는 공사를 마치고 당시 설치한 임시가설물과 발판을 뜯어낸 뒤에야 만(卍)자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왼쪽으로 돌아간 모양이 나치의 심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즉시 계약 업체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장만다라 등의 불교 만다라 이미지를 예로 들며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다라의 형태(卐)가 옳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은 중국의 좌 만자(卍)를 중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기본적으로 좌방향이든 우방향이든 동일한 상징이다. 우리나라에도 우방향의 만(卐)자가 쓰인 문화재들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진형 기자

캐나다서 '불두파괴' 훼불 충격

스리랑카 사원의 석가모니상, 피의자 파악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훼불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난 16일 캐나다의 'CBC 뉴스'가 전했다. 16일 아침 오타와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인 '힐다 자예왈데나라마야' 사원의 앞마당에 모셔져 있던 불상의 머리가 파괴된 채로 발견된 것<사진>이다.

최초발견자인 수네타(sunetha) 스님은 "우리는 이곳에서 자비와 평화를 가르치고,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며 이 불상을 건립했다. 이러한 테러를 당한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4달 전에 약 8천 달러를 들여 스리랑카에서 직접 이운해온 불상으로 1.5m 선정에 든 형상의 석가모니불이다.

절의 회계를 맡고 있는 매노스 다 실바(Manoj Da Silva)씨는 "사건이 일어난 추정시간은 15일 저녁으로 이날은 사찰에 명상수업이 있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찰의 마당과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며 "훼불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쇠몽둥이를 불상 근처에서 찾았다. 이곳에 상주하시는 스님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 아소카 웨라싱히(Asoka Weerasinghe)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과격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자리 잡은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다"고 밝히며 "우리 불교도들은 상대가 누구이든 이 도시에서 공평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 비록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상대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챙기자"고 캐나다의 불교도들에게 권고했다.

오타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사찰 관계자들과 스님들에게 사정청취를 가졌으며 주변의 목격자가 없는지 찾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국 인기 그룹 "불자의 마음으로 노래해"

인디 팝으로 명상 풀어내
불교 알고 시야 넓어지고
세상 보는 눈 달라져…

미국 북동부서 인디 팝을 해오던 인기 2인조 그룹 튠-야즈<사진>의 최신 앨범에 불교와 명상을 자세하고 깊게 풀어낸 노래가 담겨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 로어'는 미국 2인조 팝 그룹 튠-야즈의 신곡 'Honesty(정직)'를 소개했다. 튠-야즈는 이 음악을 "인디음악장르에 명상을 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튠-야즈의 보컬 메릴 가버스는 "불교를 알게 된 순간 마치 새로운 렌즈를 낀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자체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를 치는 네이트 브레너는 "불교는 정말 진보적인 종교다. 논리적이며 철학적"이라고 말했다.



이 두 음악가는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 불교를 공부해왔다고 한다. 명상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가버스는 "명상은 충동적인 요소를 다수 가라앉게 한다"고 설명하며 사회 · 정치적 이슈로 내용을 확장했다. 특히 다른 것을 해치지 말라는 교리는 소극적 자세로 달성될 수 없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버스는 불교의 교리가 전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불교와 명상을 음악에 접목시킨 튠-야즈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백인우월주의 탈피와 인종차별 금지다. 이들은 불교에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영감을 얻었다고 전한다.

한편 튠-야즈는 2006년에 결성된 미국 뉴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그룹이다. 대부분 메릴 가버스의 보컬과 네이트 브래너의 악기 연주로 음악을 구성한다. 네이트 브래너는 전자 베이스 기타뿐 아니라 루프 페달, 우쿠렐레 등을 사용해 폭 넓은 범위의 음악을 해왔다.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요.
Get in touch
With the physical sensations
coursing through your body.
내 몸에 흐르는 모든 감각에
집중하세요.
(Honesty)
정직하게
Breathe
호흡하세요.
(Honesty, honesty)
정직하게, 정직하게

-신곡 Honesty(정직) 중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